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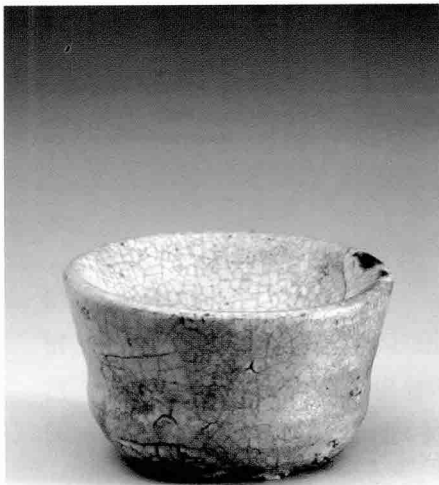


사진3



사진1

우리의 옛 등잔을 찾아서...

⑱ 종지형등잔

석유등 이전에 사용한 전통적인 등기구로서 대표적인 형태가 종지형등잔이다. 종지형등잔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매우 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등잔'이라고 할 때 보통 종지형등잔을 이르며, 그 연료로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콩기름·아주까리·동백기름·면실유(棉實油) 등 식물성 기름과 고래기름(鯨油)·상어기름·정어리기름 등 어유(魚油), 그리고 돼지기름·쇠기름(굳기름 : 쇠고기 국을 끓인 다음, 위에 뜬 기름을 걷어서 사용) 등과 같은 동물성 유지(油脂)를 주로 사용하였다.

등잔의 재질을 보면 토기(土器)나 도기(陶器)·자기(磁器)·옥석(玉石)·철·놋쇠(鑪器) 등이 있으며, 종지형 외에도 탕기형(湯器形)·원통형(圓筒形)등잔이 있다. 이러한 등잔은 대체로 받침대인 등잔대와 함께 사용하며,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넣어 불을 켜다. 심지는 솜(綿)이나 삼실(麻絲)·한지(韓紙) 등의 재료를 꼬아서 만들었는데, 이를 사용할 때는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 끝이 등잔 가장자리에서 살짝 밖으로 나오게 걸치거나 또는 심지를 네 가닥으로 꼬아 그 중 세 가닥을 새의 발처럼 심지의 발로 삼고 한 가닥을 세우는 새발심지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설명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경주대학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사진 1) 토기종지형등잔[土器鐘子形燈籠] 삼국(신라)시대 // 밑지름 6cm, 윗지름 9.4cm, 높이 3.7cm
사진 2) 백자종지형등잔[白磁鐘子形燈籠] 조선시대 // 밑지름 3.4cm, 윗지름 8.5cm, 높이 2.5cm
사진 3) 백자종지형등잔[白磁鐘子形燈籠] 조선시대 // 밑지름 3.7cm, 윗지름 5.8cm, 높이 3.5cm